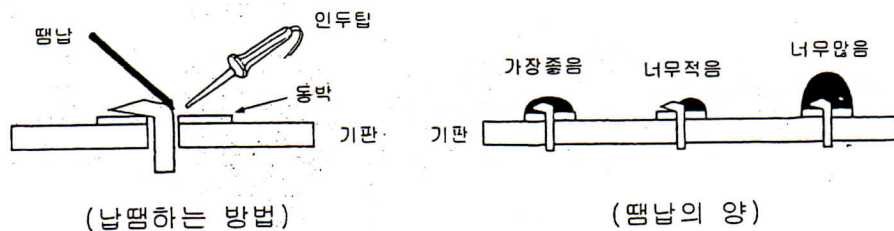


### 3) 납땀하기

- 인두를 사용하다 보면 인두 끝이 무디어지거나 불순물이 붙어 납땀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두기 끝을 교환하거나 인두기 닦는 스폰지로 깨끗하게 닦아 주도록 한다.
- 전기인두 끝의 온도는 400~450℃ 정도가 가장 좋다.  
이와 같이 전기인두는 매우 뜨거우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두 받침대에 꽂아 두어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기판을 기판 받침대에 올려놓고 인두의 끝을 구리판과 부품의 다리가 함께 닿도록 가볍게 약 2~3초 동안 댄다.
- 땀납을 인두 끝의 밑에 조금씩 밀어 넣는다.
- 땀납이 녹으면서 구리판에 퍼지면 납을 먼저 떼고 인두도 떼낸다.



- 특히 PCB는 센서부를 제외하고는 단면 동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장시 수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.
- 부품을 조립할 때는 다음 순서를 참고 한다.  
맨 먼저 ① 저항을 기판에 꽂고 구부림 → 자르고 납땀  
→ ② 수광 포토 트랜지스터·송광 다이오드 → ③ 앞바퀴 받침 LED  
→ ④ IC 소켓 → ⑤ 반고정 볼륨, 세라믹콘덴서 → ⑥ 적색 LED  
→ ⑦ 2P잭, 슬라이드 SW → ⑧ 트랜지스터 6개, 땀 및 부품의 꽂음 상태 등...을 검사하고 바르게 수정한 다음 ⑨ IC를 홀 방향에 맞추어 IC 소켓에 꽂는다.

- ① 저항은 같은 방향으로 색 “띠” 를 읽을 수 있도록 저항 꽂는 방향을 통일시켜야 하고 (오차표시 “금색” “띠” 가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) 저항의 몸체가 기판에 거의 붙도록 저항을 꽂아서 다리가 양옆으로 향하도록 직각으로 구부려준 다음 자르고 납땀한다. 저항은 극성이 없다.